

[일반직] 사무 /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합격이야기

대회운영부 정재민

① 인사말

안녕하세요. 2025년 대한체육회 일반직(사무)으로 입사한 정재민입니다. 저도 채용을 준비하면서 합격수기와 후기를 많이 찾아봤고, 준비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직접 준비했던 과정과 느꼈던 점들을 진솔하게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체육분야 공공기관 및 경기단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체육행정 업무들을 경험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보다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지원했습니다.

② 서류전형

서류전형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정량 요소를 최대한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점인정 자격증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2급, 스포츠경영관리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가점사항인 영어회화의 경우 OPIc IH를 취득하여 이와 같이 정량점수를 준비했습니다.

※ 2026년 채용은 학교교육·직업교육과 영어회화(IM3) 가점이 제외되는 등 평가기준이 변경된 만큼, 이전 합격수기보다는 최신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자격증과 경력 범위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필기전형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NCS직업기초능력평가의 경우 먼저 출제유형을 파악한 뒤, 가능하다면 다른 공공기관 필기전형에도 응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실제 시험장에서의 시간 배분과 긴장감을 경험해 보는 것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경영학 기본개념을 정리한 후 기출문제를 반복했고, 법령은 조문의 구조와 숫자, 기간, 주체 등을 중심으로 암기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잡기보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모든 문제를 맞히기보다 제한된 시간 안에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역시 새로운 내용을 계속 보기보다 반복해서 공부한 내용을 확실하게 맞히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 2026년 채용은 일부 과목들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최신 출제범위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면접전형

면접은 예상질문의 답변을 외우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연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은 통으로 암기하기보다는 STAR 기법이나 PREP 기법에 맞춰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면접스터디를 통해 실제 면접처럼 말해보고 피드백을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면접은 유창한 영어실력을 평가하기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표현들 보다는 질문의 의도에 맞게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완벽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많이 이야기하며 자신만의 답변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5 회사생활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며 예산 관리·교부 및 정산, 경기일정 관리, 경기장 승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전국종합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범위가 넓고 책임도 큰 편이라 바쁠 때가 많지만, 열심히 준비해 온 대회가 잘 마무리됐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6 맺음말

채용을 준비하다 보면 막막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입사했기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금해하기보다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간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